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영성에 대한 탐구적 고찰 - 그리스도교 영성을 중심으로 -

정 현 태

한국국제대학교 겸임교수

오 윤 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외래교수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에 있어서 영성의 적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먼저 영성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하고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 후 그리스도교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영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한국 사회복지에 대한 영성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영성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영성의 개념 및 속성을 고찰하였고, 사회복지와 영성의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리스도교(가톨릭) 사회복지에 대한 영성의 원리를 영성적 원리와 실천적 원리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그리스도교 사회복지의 영성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복지와 구분되는데, 그리스도교 사회복지의 구현은 영성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작은이가 되어 사는 것이 영성을 통한 사회복지실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성이란 인간에 대한 전인적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영성이 역경을 넘어 끊임없이 삶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힘으로써의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면 영성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실제적인 유용한 요소이다. 셋째, 교회 사회복지활동의 실천적 원리를 통해 볼 때 그리스도교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는 일반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사회복지와 그리스도교 사회복지의 영적 원리에서 차이가 있고 실천적 원리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핵심 주제어: 영성, 사회복지, 그리스도교 영성, 사회복지실천 등

I. 서 론

최근에 이르러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영성(Spirituality)의 중요성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영성이라는 용어에 대해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서 인간경험의 중요한 구성요인인 영성의 의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영성의 개념 적용에 있어서 명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성의 개념을 정교화 또는 일반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¹⁾

영성은 인간 전체성의 본질 요소인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영역 중 가장 핵심 영역으로서 인간내부의 통일적인 힘이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설정하고,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힘이다.²⁾ 또한 영성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하는 힘으로써 자신의 전인적 존재에 대한 철학이고 신념이며, 궁극적인 목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내적 자원의 총체이다.

그동안 영성은 주로 종교적·심리학 측면에서 연구되었는데, 영성은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보다 넓게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영성을 사회복지와 연계시키는 것에 부정적이다. 캔다와 퍼만(Canda E. R. and Furman L.)은³⁾ 사회복지에서 영성의 개입을 부정하는 중요한 이유를 다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는 ‘영성’은 추상적 의미가 강해 개념화가 어렵다. 둘째는 과학적 조사가 불가능하다. 사회복지의 사회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관점이나 신념이 실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넷째는 영성이 방법론이기보다는 실천가의 품성이나 자질에 관련된 것이다. 다섯째는 아직 학문적인 준비와 연구가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⁴⁾ 결국 사회복지에서 영성의 활용은 비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사회과학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연구 지향이라는 사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캔다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전인적(holistic) 관점에서의 영성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간의 다양한 초월경험과 신비한 종교체험, 직관능력을 아우르는 영적경험들이 존중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⁵⁾

1) 조휘일, 『사회사업실천을 위한 영성연구』, 『사회복지실천』 5(1)(서울: 사회복지연구센터, 2005), 7쪽.

2) 최금주, 『노인의 영적웰빙이 자아통합과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2쪽.

3) E. R. Canda and L. Furman,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The Heart of Helping*(New York: The Free Press, 1999), pp. 63-64.

4) 유장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성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탐색』, 『통합연구』 16(2)(서울: 통합연구학회, 2003), 12쪽 재인용.

5) E. R. Canda, “Religious Content in Social Work Education: A Comparative approach”, *Journal of*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영성과 관련된 연구 대다수가 영성관련측정도구로 팔루치온과 엘리슨(Paloutzion, R. F. and Ellison, C. W.)의 영적안녕척도를 사용하거나 몇몇 외국에서 개발된 영성관련척도를 번안하여 한국판 영성측정도구로 사용하고 있다.⁶⁾ 하지만 팔루치온과 엘리슨의 영적안녕척도를 비롯한 한국판 영성측정도구는 엄격한 의미에서 영성자체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종교적 안녕이라는 접근에 가깝고, 또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인간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의미의 영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사회복지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유지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핵심적 조건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영성(Spirituality)이다. 인간에 대한 전인적 접근인 영성을 사회복지실천에 개입시킴으로써, 실천이 갖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⁷⁾ 이처럼 영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영성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국내에서는 영성에 대한 보편화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성의 개념을 도출해 보고, 영성이 사회복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찰하며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영성에 대한 논의는 그리스도교 중에서도 특히 가톨릭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II. 이론적 고찰

1. 영성의 개념이해 및 속성

영성(Spirituality)이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된다. 영성은 종교 및 종교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영성이 자주 종교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두 개념은 다르다. 영성에 대한 연구는 종교에 대한 연구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다. 종교는 신앙의 외적표현으로서 영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믿음, 윤리강령, 전례행위 등을 강조하며, 동시대의 문화적 가치나 개인적 철학을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다.⁸⁾

반면 영성은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존재와 인식을 포괄하는 인격의 한 부분인데,

Social Work Education, 25(1), 1999, pp.36-45.

6) 김용환 · 최금주 · 김승돈, 『한국에서의 영성관련 연구동향 분석 및 학문적 함의』, 『상담학연구』10(2)(서울, 한국상담학회, 2009), 822쪽.

7) 성진우, 『가톨릭 사회복지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52.

8) M. Liening, *Spiritual Needs of the Psychiatric Patient*, 1978: 오복자 · 강경아, 『영성(spirituality) 개념 분석』, 별책 30(5)(서울: 대한간호학회지, 2000), 1146쪽 재인용.

그 핵심은 본연의 내면적 욕구로서 삶의 의미와 목표의 추구에 있다. 비록 인간의 현실이 고통과 결핍, 소외 등으로 규정되지만 그 현실에 충실히 대응하여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영성이다.⁹⁾ 이처럼 종교와 영성은 구분된다.

영성이란 용어는 관점에 따라 학자들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종교와 연관된 신학적인 관점에서 최봉기는 영성을 인간의 영혼이 신과 만나는 경험이라 하였으며,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초월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영성이란 자기창조를 위한 역경에 꼭 필요한 요소로 보았다.¹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브릴(Brill, N.)은 영성을 신체적 조직들에 생명을 주는 활력소 또는 생기의 근원이며, 인간의 생활 속에서 경험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였다.¹¹⁾

사회복지실천적인 관점에서 영성을 자신보다 높은 존재와의 관계,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를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¹²⁾

뵘그라스(Piepgas, R.)는 영성이란 막연한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는 영성이 삶의 비물질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추상적이며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느껴지고, 아주 주관적인 개념이며, 종교, 관습, 직관, 삶의 철학 및 기쁨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였다. 그리고 사랑, 선택, 초월성을 영성의 한 측면으로 보았다.¹³⁾ 레인(Lane, J. A.)은 영성이 생명을 주며, 실존(existence)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⁴⁾ 부카르트(Burkhardt, M. A.)는 영성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통해 표현되든지 않든지 간에 인간의 본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하였다.¹⁵⁾

이와 같이 학자들의 영성에 대한 관점은 아주 개별적이고 주관적이며, 영성을 인간의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본성으로 보았다.

영성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생각·태도·행동을 유발하고 조절하는 내면 원리로 구체적인 삶의 종교적·윤리적·도덕적 가치를 총칭하며,¹⁶⁾ 인간의 내적 자원의 총체로서

9) E. R. Canda, "Conceptualizing Spirituality for Social Work: Insights from Diverse Perspectives", *Social thought*, 14(1), 1988b.

10) 최봉기,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11) N. Brill, *Working with people: The Helping Process*(N.Y.: J.B. Lippincott Ct, 1978).

12) D. S. Derezotes and K. E. Evans, "Spirituality and Religiosity in Practice: In-Depth Interviews of Social Work Practitioners". *Social Thought*, 18(1), 1995; M. V. Joseph, "Religion and social work practice", *Social Casework*, 60(7), 1988.

13) R. Piepgas, "The Other Dimension: Spiritual Help", *American Journal of Nursing*, 68(12), 1986, pp.2610-2613.

14) J. A. Lane, "The Care of the Human Spirit",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3(6), 1987, pp.332-337.

15) M. A. Burkhardt, "Spirituality: An Analysis of the Concept", *Holistic Nursing Practice*, 3(3), 1989, pp.69-77.

1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천주교 사회복지백서』(서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2002). 222조 1항.

의식적, 감상적, 도덕적, 지적, 신체적 가치들의 원리를 창출해내는 삶의 원리와 같다.¹⁷⁾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그리스도교 영성을 인간의 모든 삶 안에서 우주적 에너지, 생명력, 즉 성령을 체험하는 능력으로 이해하였다. 이 능력은 인간의 존재론적 구조이며, 인간은 누구나 우주적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하였다.¹⁸⁾

그리스도교 영성은 인간을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의 두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내적 측면은 명상, 내면화, 심적 추구 등을 통해 내면의 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내적 신비와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 외적 측면은 타인과 사회와 자연이라는 다른 존재와 연관을 맺고 거기서 연대성, 차이 존중, 상호성과 보완성을 산출해내는 관계의 총체로서의 인간이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이 두 가지 측면을 역동적 과정에서 하나로 묶고 이 과정을 통해 인간적 완성, 인간과 주변 환경의 통합을 추구한다.¹⁹⁾

이상과 같이 열거한 내용들을 보더라도 영성이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서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어떤 실재로 이해된다.

따라서 영성은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윤리적, 정신적, 종교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각자의 윤리적, 정신적, 종교적 확신에 따른 어떤 사고방식과 행동 및 생활양식을 형성한다²⁰⁾고 하겠다.

이런 영성에 대한 개념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영성을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하는 힘으로서 자신의 전인적 존재에 대한 철학적이고 신념이며, 궁극적인 목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내적 자원의 총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영성은 역경을 넘어 끊임없이 삶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힘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찰해 본 영성의 개념을 통해서 영성의 속성을 알아볼 수 있다. 영성에서 강조되는 두 가지 속성은 '의미를 만드는 것'과 '초월'인데 이것은 영성에 대한 수직적 영역과 수평적 영역을 암시하는 것이다. 수직적 차원은 신과의 관계로서 인간이 질병과 고통, 상실 등과 같은 삶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자신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수평적 차원은 삶에 대한 만족감과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계되는 실존적 의미로서 자신, 이웃,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²¹⁾ 박현준은 이 수직적 차원(내적 범주)과 수평적 차원(외적, 관계적, 실천적 범주)은 역동적 관계이며 동일한 실체의 두 측면이라고 설명한다.²²⁾

17) M. Liening, *Spiritual needs of the psychiatric patient*, 1978: 오복자·강경아, 앞의 글, 1146쪽 재인용.

18)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한국 가톨릭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 조사』, 『가톨릭 사회복지』 16권(2001 겨울호), 8-43쪽.

19) L. Boff, 김항섭 역, 『생태신학』(서울: 가톨릭출판사, 1996), 147쪽.

20) 김보록, 『사회복지와 가톨릭영성』,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편, 『가톨릭 사회복지교육과정』(서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2001).

21) 강정호, 『암환자의 영적안녕상태에 관한 조사연구』(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22) 박현준, 『그리스도교 영성의 공동체적 성격』, 『우리신학』 1(서울: 우리신학연구소, 2002), 8-9쪽.

한편 하제(Haase B. T. et al.) 등은 영성의 대체 개념으로 영적 관점(spiritual perspective)을 사용하는데,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인 영성이 개인마다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영적 관점의 주요 속성으로 관계성, 믿음, 창조적 에너지를 제시하였다. 영적 관점의 결과로 삶의 목적과 의미, 행위를 안내할 삶의 철학이나 신념 및 가치관, 현실에서의 자기초월이 있다고 하였다.²³⁾

하우든(Howden, J. W.)은 영성의 속성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 자원, 통합적 관계성, 초월성을 제시하였다. 그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준거로서 삶의 이유, 의미 및 목적 진술, 성취 및 미래지향적 성향을 제시하였고, 내적 자원에 대한 경험적 준거로 내적 강인함, 내적 평화, 적응, 자아존중감 및 자신에 대한 주제 파악을 제시하였다. 통합적 관계성에 대한 준거로 봉사, 용서, 화해, 소속감 등을 제시하였고 초월성에 대한 경험적 준거로 자기치유, 승화, 안녕 성취 및 현실상황의 초월 등을 제시하였다.²⁴⁾²⁵⁾

오복자와 강경아는 “영성의 개념분석”이라는 연구를 통하여 영성의 주요 속성을 ‘조화로운 상호관계성’, ‘초월성’, ‘통합적 에너지’,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구분하여 언급한다.²⁶⁾ 첫 번째 조화로운 관계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조화롭게 유지하도록²⁷⁾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범주에는 자기 자신, 타인/자연 및 상위존재와의 조화로운 관계가 있다고 한다.²⁸⁾ 두 번째 속성인 초월성은 일상적 경험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관점을 보는 능력으로 그 범주에는 자기자신, 타인, 상위존재를 포함한다. 세 번째 속성은 통합적 에너지인데 힘과 내적 자원 두 개 범주로 구성된다. 영성의 네 번째 속성은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나타나는데 영성은 개인의 내적 신념이나 가치관을 주관하며, 삶의 궁극적 목적과 의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2. 영성에 대한 사회복지학계의 선행연구 검토

영성은 주로 종교학이나 신학, 심리학 등에서 다루던 주제였으나, 최근에 들어 인간을 돕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연구 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 교육과정에서 영성과 관련된 교과목이 연구되고 있다.²⁹⁾

23) B. T. Haase, D. D. Coward, N. K. Leidy, & P. E. Penn, “Simultaneous Concept Analysis of Spiritual Analysis of Spiritual Perspective, Hope, Acceptance and Self-transcendence. Imag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4(2), 1992, pp.140-148.

24) J. W. Howden, *Development &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piritual Assessmen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1992).

25) 오복자·강경아, 앞의 글, 1147쪽 재인용.

26) 오복자·강경아, 앞의 글, 1148-1149쪽.

27) Burkhardt, 앞의 글, pp.69-77.

28) P. G. Reed, “An Emerging Paradigm for the Investigation of Spirituality”, *Nursing and Health*, 10, 1992.

국외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로는 캔다, 더들리와 헤프고트(Dudly, J. R. and Helfgott, C.), 셰리던과 그의 동료(Sheridan et al., 1992) 등은 사회사업교육가와 실천가들 자신의 영적 믿음체계(spiritual belief system)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자료 분석에는 지속적 비교 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s)을 사용하였다.

캔다는 영성은 보편적(universal)인 것이며, 사회사업가는 다른 영성적 접근의 가치를 긍정하면서 자신의 영적 믿음과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³⁰⁾

더들리와 헤프고트는 미국 동부 지역 네 개의 사회사업학과 교수들을 상대로 연구하였다. 질문지에는 영성적 · 종교적 배경에 관한 질문과 사회사업 교육과정에서 영성적 자료를 포함시키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사회사업 과정에서 영성적 내용을 지지하였지만 혼합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의견이 불일치하는 것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문제이다.³¹⁾

셰리던, 윌머 그리고 아취슨은 280명의 정직 사회사업교육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의 동남부에 있는 25개의 사회사업학교의 정직교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차분석, 상관관계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질문지는 셰리던과 그의 동료들의 것과 비슷하였으며, 질문지에 응답자들 중 86.1%는 종교 또는 영적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³²⁾

1992년 사회사업교육위원회(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와 사회사업대학 국제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Social Work)에서 나타나는 영성에 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³³⁾ 영성에 대한 관점으로 첫째, 개인은 ‘생리적 · 심리적 · 사회적 · 영적(bio-psycho-social-spiritual)’ 국면을 포함하는 전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론적(holistic) 입장에서 정신적 이해는 사람들과 자연생태계 사이에서 상호 책임의 윤리와 모든 개인에게 존중과 품위를 인정하는 윤리를 의미한다. 둘째, 종교와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않거나 간에 다양한 영성은 지지되어야 한다. 종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통의 정신적 토대를 세우며 상호간의 이해를 키우기 위하여 종교계 상호간에 존중하는 대화가 필요하다. 셋째, 영성은 개인적 성장과 동시에 사회적 변화를 위한 행동으로 연계될 필요

29) M. J. Sherindan, “Defining Spirituality Sensitive Social Work Practice: An Essay Review of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The Heart of Healing”, *Social Work*, 46(1), 2001.

30) Canda, E. R., “Conceptualizing Spirituality for Social Work: Insights from Diverse Perspectives,” *Social thought*, 14(1), 1988b, pp.30-46.

31) Dudley, J. R. and Helfgott, C., “Exploring a Place for Spirituality in the Social Work Curriculum”,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6. 1990, pp.287-294.

32) Sherindan, M. J., and Wilmer, C. M., and Atcheson, L., “Inclusion of Content on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the Social work Curriculum: A Study of Faculty View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0, 1994, pp.363-376.

33) 이해숙, 『종교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과 Spirituality』, 한국종교사회복지대표자 협의회 제2회 심포지움자료, 1999.

가 있다. 정신적으로 기초가 되어 있는 열의는 전쟁, 억압, 빈곤, 차별, 등에 희생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어 사회정의를 목표로 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보면 이제 사회복지에 있어 영성에 관한 논의는 매우 의미 있으며, 실천 현장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의 영성을 고려한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반론의 의견도 있다. 영성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매우 광범위하여 포착하기 어렵고 너무나 독특한 개인적 체험 안에 있는 것이어서 다루기가 힘들다는 것이다.³⁴⁾ 또한 종교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성직자와 같은 전문가에게 이양할 수 있고, 유능한 사회복지사라면 클라이언트의 종교적 성향을 그들의 사회심리적 접근에 포함시키고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까지도 영성적 접근과 이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영성적 차원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회복지실천에서 영적 차원을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사회복지실천과 교육에서 영적 내용이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사회복지 실천가는 전인적(holistic), 생태체계학적 접근(ecosystems approach)을 실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³⁵⁾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한 영성과 사회복지의 관계는 다인종, 다문화적 특성과 그리스도교 전통을 가진 미국의 사회사업의 고유한 상황에서 논의된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영성이기에 이것을 고스란히 우리나라 사회복지 영역에 수용하기에는 사회·문화적, 종교적 정서에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영성이 그리스도교만의 고유한 것은 아닐지라도 영성이나 영적안녕이 그리스도교적 전통 안에서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영성이 수용되려면 한국의 상황에 맞게 영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논문들의 경우 사회복지활동과 영성이 관련된 것은 매우 미비한 상태로 선행연구 고찰에 어려움이 있다.

영성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펴본 김용환 외의 연구를 보면³⁶⁾ 영성의 개념에 대한 연구로는 이혜숙, 정현태의 연구가 있다. 그 외 논문들은 영적안녕척도를 이용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한 것이다.³⁷⁾ 개념에 대한 탐구나 이론적 접근은 미비하고 실증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는 이런 연구동향은 위에서 말했듯이 사회복지학이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중

34) P. Sullivan, "The Limits of Incorporating Spirituality into Social Policy", *Social Casework* 69, 1994; 이혜숙, 「임상사회복지에서의 Spirituality 개념화를 위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42쪽 재인용.

35) R. McCleary, "An examination of Postmodernism, Spirituality and the New Age and Holistic Health Movements in Social Work Practice and Research", *UM Mcrform 9948241*, 1999, pp.14-17.

36) 김용환·최금주·김승돈, 앞의 글, 821-823쪽.

37) 이런 연구의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영적안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영적안녕은 영성과는 어느 정도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시한 결과이다.³⁸⁾ 실증적 연구방법론을 강조하는 경향이 국내에서는 영성개념을 적용한 연구를 어렵게 만들었다.³⁹⁾

이런 현상은 결국 사회복지에서 과연 영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는 사회복지에서 영성이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접근을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한국 그리스도교에서의 사회복지 가치와 영성원리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에 유용한 영성의 개념과 원리를 밝혀 보기로 한다.

Ⅲ. 그리스도교 사회복지의 가치와 영성의 원리

그리스도교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는 “사회복음화의 일환으로서 교회가 이웃, 즉 사회에 대한 사명을 이행하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동질성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천주교 사회복지백서에서는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영성의 속성을 “작은이들(Anawim)”⁴⁰⁾에 대한 마음, 사랑, 봉사, 나눔 등으로 분류하고 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성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은 자신보다 가난하고, 여건이 열악한 이들, 즉 “작은이들”에 대한 자기 자신의 봉사와 사랑, 그리고 나눔의 정신으로 행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지활동이라는 것이다.⁴¹⁾ 이것은 곧 교회의 기본 이념과도 같은 것으로서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도 소외되고 가난한 “작은이들”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일반 사회복지활동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정신은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222조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참다운 인간의 삶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예방해 주며, 또한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모든 사회적인 모순과 그 환경, 또한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정의에까지도 관심을 기울여 “인간복지”, 즉 이 지상에 “인간사랑”이라는 신(God)의 뜻이 실현되는 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38) 오정수, 『한국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상황과 복지』 13(서울: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2002), 35쪽.

39) 김용환 · 최금주 · 김승돈, 앞의 글, 824쪽.

40) 작은이(Anawim)는 성서적 표현으로 사회에서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되고 박해받으면서도 신을 찾아 기도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응답과 보답을 확고히 믿는 이들을 의미한다. 작은이들을 위한 교회라는 표현이 이를 보여준다.

41)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 앞의 책.

1. 영적 원리

이처럼 궁극적으로 신이라는 절대자를 지향하는 교회의 사회복지는 일반 사회복지와 구분되는 영적원리를 가지고 있다.⁴²⁾

1) 복음적 원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이며 사회적 공동체인 교회는 하느님과 전 인류의 깊은 일치를 나타내고 이루어 가는 표지와 도구이다.⁴³⁾ 교회는 모든 인간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고 인간 개개인과 인간 공동체가 복음적으로 변화되어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할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러한 사명을 이루어 가는 기본 원리로 주님께서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웃 사랑 실천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과 고통받는 이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를 함께하며, 그들 속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교회 창립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로 노력하며,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께 봉사하고자 마음을 쓰는 것이다.⁴⁴⁾

복음은 단순히 선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봉헌을 통하여 완성된다. 따라서 사회복지 활동은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이웃 사랑 실천과 가난한 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키는 사회복지 활동은 바로 세상 속에 파견되어 세상 속에서 복음화를 증거하며 이루어 가는 중요한 사목적 활동이며 사목의 총체성을 이루어 가는 특별한 사목이다.

2) 교회의 지향적 원리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은 하나인 동시에,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또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특성을 지녀야 한다. 하나인 교회의 지체인 각 지역 교회는 지역의 시대적 여건과 환경 및 가난한 이들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하면서도 하나인 교회와 일치 속에서 행하여야 한다. 거룩한 교회로서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은 단순한 인도주의적인 성격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가난한 이들에게 전하며 이를 통하여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영성을 지녀야 한다. 보편적인 교회의 지체인 지역 교회는 지역 교회 차원의 사회복지 활동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른 지역 교회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사회복지 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로서 교회 사회복지 활동은 교회의 전통과 전승을 시대에 맞게 적용하

4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의 책.

4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44) 교회헌장 8항.

면서 사도의 후계자인 지역 교회 주교와 교계 제도의 사목적인 뜻을 따라야 한다.

2. 실천적 원리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실천하는 것은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신자들이 사회복지활동에 실천하는 것은 일반 사회복지의 인도주의적 동기와 시민권과 더불어 하느님의 성소(聖召)에 대한 응답이다. 이웃 사랑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따르라(마태; 9, 9)”라는 부르심에의 응답이며, 오늘을 사는 고난받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가난한 사람, 노약자, 신체적·정신적 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 문화·문명 및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 등을 만나는 것이다. 즉 애덕(愛德) 활동을 통해 하느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데 있다.⁴⁵⁾

교회 사회복지의 실천은 교회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이다. 한국 교회는 초창기로부터 신자들과 이웃 주민들의 복지에 관심을 보였다. 그것은 첫째로 사회복지 사업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고, 둘째로 부모 없는 아동과 노인들과 같이 요보호 대상의 어려움을 구하는 좋은 수단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랑 실천과 인간의 구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한국 교회가 초창기부터 모진 박해를 당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때로는 조직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펼쳐 온 것은 이러한 신앙적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앙적 바탕을 근거로 한 사회복지의 실천적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⁴⁶⁾

1) 인간존엄성의 실현

그리스도교 사회복지 영성의 근본적 원리는 그리스도적 휴머니즘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하느님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에 연결하는 사상이다. 교회의 문헌들에 나타나는 교회의 사회복지 사상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으로 나타난다. 인간존엄성의 실현은 개인의 발전과 실현을 의미하는데, 이는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인간존엄성의 실현은 인간이 하느님과 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존엄성의 실현을 그 근본 소명으로 삼아야 한다.

2) 사랑과 정의 실현

사회복지의 이념 중에서 정의의 실현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정의에 사랑이 없다면 의미 없는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사랑과 정의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은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실천인 동시에 가난한 이들을 고통 속에 머물게 하는 불의한 사회 구조를 정의롭게 만들어 가는 활동까지도 포

45) D. Dorr, *Spirituality and Justice*(New York: Orbis Books, 1984).

46)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 앞의 책.

함하여야 한다. 사랑 실천은 나눔을 통하여 구체화되며 나눔은 정의를 실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나눔은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사랑의 동기에서 출발하여 연민, 공감, 연대, 협력의 정신으로 인력, 조직, 전문성, 시간 및 재화와 같은 자원을 가난한 이들의 진정한 인간 발전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더욱 적극적인 정의의 실현은 헌신과 투신으로 가난한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편견, 제도, 사회구조 등을 정의롭게 개혁하고 변혁시키는 일이다. 현대 세계의 가난한 이들을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랑 실천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들을 짓누르는 불의를 제거하는 행동까지도 필요로 한다. 교회 사회복지 활동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구현하는 필요조건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가는 한 가지 수단이다.⁴⁷⁾

결국 진정한 의미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사회복지활동은 정의의 실현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사랑의 실현도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⁴⁸⁾

3) 공동체의 의무이행 - 다양성과 전문성

모든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적으로도 이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능력껏 전문적인 교회 사회복지 활동에 다양한 형태로 자원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참여 이외에도 필요할 때에는 접근하기 용이한 교회 내외의 사회복지 시설·기관에 자원 봉사로서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교회의 전문적인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은 본성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위임을 받아 전문성을 가지고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참여는 당연한 것이며 교회 사회복지 활동은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오해는 불식되어야 한다.

교회 사회복지 활동은 실질적으로는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지만, 교회성을 담보받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교회 조직인 교계 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회 사회복지 활동은 교계 제도의 틀에 따라 보조성의 원칙에 맞게 질서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교회 사회복지 활동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본당과 사회복지 개별 시설·기관은 교회 사회복지 활동을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기관은 교회 공동체의 위임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교회 공동체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은 자발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도 교계 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관할 지역 내의 본당 및 교구와 사목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교회 사회복지 활동은 시대적인 여건과 환경 및 가난한 이들의 필요에 대한 분석과 식별에 따라 다양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급변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복지 요구가 있을 때 유연하게 응답하여야 하며, 능력과 관심에 따라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47)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48) 원종훈, 『가톨릭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영성』(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8-59쪽.

한다. 이와 같은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며, 순례하는 나그네인 교회의 특징을 지녀야 한다. 이는 자발성과 자율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교회 사회복지 활동은 끊임없이 시대의 징표를 읽고 이에 대한 복음적인 응답을 모색하는 분석력과 식별력을 필요로 한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활동에 기존의 체제를 단순히 유지하려는 노력이나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 활동 방법을 고수하려는 것은 교회 사회복지 활동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교회 사회복지 활동이 다양성과 유연성을 필요로 하면서도 항상 유념하여야 할 바는 전문성의 확보이다. 이는 사회변화뿐 아니라, 교회 사회복지 활동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기관에서는 끊임없이 전문성을 높여가야 한다. 교회 사회복지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은 지식적 전문성, 경험적 전문성, 영성적 전문성이다. 지식적 전문성은 사회복지 이론을 습득하여 채워질 수 있으며, 경험적 전문성은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축적될 수 있고, 영성적 전문성은 끊임없는 신앙적 자기 성찰로 이루어진다. 교회 사회복지 활동이 세간의 사회복지 활동과 차별될 수 있는 것은 영성적 전문성 때문이다. 하느님의 영에 열려 있고 항상 영적 민감성으로 준비된 영성은 교회 사회복지 활동의 신원과 위상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이다. 영성은 교회 사회복지 활동을 생동시키는 힘의 원천이며 헌신과 투신의 동기이고 동시에 지속시키는 힘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가난한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느님의 영과 함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IV. 결론 : 그리스도교 영성과 사회복지실천의 함의

현대사회는 빈부의 격차, 사회적 불평등이나 사회적 배제 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에 있어 인간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근래에 들어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영성적 차원에 이르고 있다. 영성을 통해 보다 심도 있고 다층적인 인간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영성을 통한 사회복지의 삶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자신이 ‘작은이’가 되어 ‘작은이’와 더불어 ‘작은이’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개인으로서 기도와 희생을 잘 바치고 부부, 가정, 직장, 사회생활을 충실히 이끈다 하더라도 자신이 ‘작은이’가 되지 못하고, ‘작은이’에게 열린 마음으로 봉사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복지의 삶은 지금까지 설명한 그리스도적 사회복지 영성의 원리와 실천을 모두 실현할 때 가능하다. 영성의 원리로서, ‘작은이’에 대한 보살핌을 하느님-그리스도-복음-교회-성화-구원을 껴는 연결고리로 보고, 그리스도적 생활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로 받아

들인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과학적 사실주의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영성이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인간이해의 본질적 요소로 여겨지는 영성에 대하여 알아 본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성이란 인간에 대한 전인적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가 인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한다면 영성은 이런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당연히 중요한 개념일 수밖에 없다. 영성이 그리스도교만의 고유한 것은 아닐지라도 영성이나 영적안녕이 그리스도교적 전통 안에서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영성이 사회복지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 가족, 집단, 지역 사회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종교적 형태의 영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영성이 역경을 넘어 끊임없이 삶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힘으로써의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면 영성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실제적인 유용한 요소이다. 영성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공감영역을 심화시켜주며,⁴⁹⁾ 영성(지향도)은 중년기 남성의 일탈행위의 감소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⁵⁰⁾ 또 노인의 영성과 자아통합감의 관계를 보면 영성이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의 정도도 높았다.⁵¹⁾ 사회복지종사자의 영성이 높으면 직무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²⁾ 흔히 종교적으로 깊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사회복지 업무과정에서의 소진상태를 극복하는 데 기도나 명상 등을 통한 영성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⁵³⁾ 그러므로 사회복지 실천에서 영성은 사회복지사들이 흔히 경험하게 되는 소진을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 영성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중요한 몫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교회 사회복지활동의 실천적 원리를 통해 볼 때 그리스도교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는 일반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교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실천가치인 인간존엄성, 사랑이나 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49) 이혜숙, 앞의 글, 60쪽.

50) 고기숙, 『중년기 남성의 영성지향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4)(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217쪽.

51) 이현영, 『노인의 영성(spirituality)과 자아통합감의 관계연구』(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76쪽.

52) 이혜정,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영성과 직무성과에 관한 연구 -가톨릭 수도자들을 대상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60쪽.

53) 한국천주교주교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앞의 책.

공동체적 실천활동은 일반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인 사회정의, 평등, 인간존엄성의 존중, 약자들의 편에 섰음 등과⁵⁴⁾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사회복지와 그리스도교 사회복지의 영적 원리에서 차이가 있고 실천적 원리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 사회복지의 상기한 바 있는 그 목적상 일반 사회복지 서비스 외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적 희망, 그리고 참 삶의 기쁨까지도 함께 전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 차별성을 “영적인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겠다. 하지만 “영적인 서비스”는 쉽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가의 온전한 삶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천가의 영성에 따라 “영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달라질 것이며, 이는 교회 사회복지가 일반 사회복지와 구분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인간의 삶이 복잡해지고 사회가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교 영성이 사회복지실천에 그리고 사회와 인간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출발이 그리스도교 영성이었지만 특정종파의 이해나 신념체계를 넘어 다양한 영적인 측면을 포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영성의 개념을 찾으려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영성에 따른 사회복지실천 활동을 그리스도교회나 사회복지사 등 제공자 중심으로 접근하였다는 것이다. 영성이 클라이언트에게 주는 의미, 제공자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성에서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였다. 사회복지에 유용한 영성의 개념에 대한 일차적인 접근을 시도한 한계이다. 그다음의 연구는 필자의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며 또 훌륭한 연구자의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54) 오윤수, 「분배정의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유형」(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33쪽.

참고문헌

- 강정호, 「암환자의 영적안녕상태에 관한 조사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고기숙, 「중년기 남성의 영성지향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4),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 김기태 · 박병현 · 최송식, 『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전영사, 2002.
- 김보록, 「사회복지와 가톨릭영성」,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편, 『가톨릭 사회복지 교육과정』, 서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1999.
- 김영중,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학지사, 1999.
- 김용환 · 최금주 · 김승돈, 「한국에서의 영성관련 연구동향 분석 및 학문적 함의」, 『상담학연구』 10(2), 서울: 한국상담학회, 2009.
- 박현준, 「그리스도교 영성의 공동체적 성격」, 『우리신학』 1, 서울: 우리신학연구소, 2002.
- 성진우, 「가톨릭 사회복지정책성 확립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오복자 · 강경아, 「영성(spirituality) 개념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별책』 30(5), 서울: 대한간호학회, 2000.
- 오윤수, 「분배정의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유형」,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오정수, 「한국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상황과 복지』 13, 서울: 한국 사회복지학연구회, 2002.
- 원종훈, 「가톨릭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영성」,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유장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성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탐색」, 『통합연구』 16(2), 서울: 통합연구학회, 2003.
- 이태수,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전망」, 『한국천주교주교회의회보』, 서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2000 여름.
- 이현영, 「노인의 영성(spirituality)과 자아통합감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이혜숙, 「임상사회복지에서의 Spirituality 개념화를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_____, 「종교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과 Spirituality」, 한국종교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제2회 심포지움자료, 1999.
- 이혜정,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영성과 직무성과에 관한 연구—가톨릭 수도자들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조희일, 「사회사업실천을 위한 영성연구」, 『사회복지실천』 5(1), 서울: 사회복지연구센터, 2005.
- 최금주, 「노인의 영적웰빙이 자아통합과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최봉기,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 최상순, 「일 지역 성인의 영적 안녕, 희망 및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 박사학위논문. 1991.
- 최용병. 「사회복지와 가톨릭 영성: 성서 안에서의 사회복지 사상」.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편. 『가톨릭사회복지교육과정』. 2000.
- 최창무.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사회복지 활동의 사목적 전망」. 『가톨릭 사회복지』 (4).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 1995.
-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보고서』. 2000.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한국 가톨릭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 조사」. 『가톨릭 사회복지』 (16).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 2001.
- _____. 『한국천주교 사회복지 백서 2001』. 2002.
-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현대세계의 사목현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5.
- Boff, L. *Ecologia Theology*. 『생태신학』. 김항섭 역. 가톨릭출판사. 1996.
- Brill, N. *Working with people: The Helping Process*. N.Y.: J.B. Lippincott Ct. 1978.
- Burkhardt, M. A. "Spirituality: An Analysis of the Concept". *Holistic Nursing Practice*, 3(3). 1989.
- Canda, E. R. "Spirituality, Religious Diversity, and Social Practice", *Social Casework*, 69(4), 1988a.
- _____. "Conceptualizing Spirituality for Social Work: Insights from Diverse Perspectives", *Social thought*, 14(1), 1988b.
- _____. "Religious Content in Social Work Education: A Comparative Approach".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5(1). 1999.
- _____. *Spirituality in Social Work*. 김용환 · 김승돈 · 최금주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양서원. 2007.
- Canda, E. R. and Furman, L.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The Heart of Helping*. New York: The Free Press. 1999.
- Canda, E. R. and Furman, L. D.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The Heart of Helping*. 박승희 · 이혁구 외 역. 『종교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실천에서 영성의 다양성』. 성균관 대학교 출판부. 2003.
- Derezotes, D. S. and Evans, K. E. "Spirituality and Religiosity in Practice: In-Depth Interviews of Social Work Practitioners". *Social Thought*, 18(1), 1995.
- Dorr, D. *Spirituality and Justice*. N.Y: Orbis Books, Mary knoll. 1984.
- Dudley, J. R. and Helfgott, C. "Exploring a Place for Spirituality in the Social Work Curriculum",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6, 1990.
- Frankl, V.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75.
- Haase, B. T. and Coward, D. D. and Leidy, N. K. and Penn, P. E. "Simultaneous Concept Analysis of Spiritual Analysis of Spiritual Perspective, Hope, Acceptance and Self-transcendenc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4(2), 1992.
- Howden, J. W. "Development &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piritual Assessment

-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1992.
- Lane, J. A. “The care of the Human Spirit”.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3(6), 1987.
- Liening M. *Spiritual Needs of the Psychiatric Patient*. 1978.
- McCleary, R. “An Examination of Postmodernism, Spirituality and the New Age and Holistic Health Movements in Social Work Practice and Research”. Tulane University. *UM Mctform 9948241*. 1999.
- Paloutzian, R. F. and Ellison, C. W. “Loneliness :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A. Peplau, D. Perman(Ed). 1982.
- Piepgas, R. “The Other Dimension: Spiritual Help”. *American Journal of Nursing*. 68(12). 1986.
- Reed, P. G. “An Emerging Paradigm for the Investigation of Spirituality”. *Nursing and Health*. 10. 1982.
- Sherindan, M. J. “Defining Spirituality Sensitive Social Work Practice: An Essay Review of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The Heart of Healing”, *Social Work*, 46(1), 2001.
- Sherindan, M. J. and Bullis, R. “Practitioner’s Personal and Professional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Religion and Spirituality: Issues for Education and Practice”.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8(2). 1982.
- Sherindan, M. J. and Wilmer, C. M. and Atcheson, L. “Inclusion of Content on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the Social Work Curriculum: A Study of Faculty View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0, 1994.
- Sullivan, P. “The Limits of Incorporating Spirituality into Social Policy”. *Social Casework*. 69. 1994.

원고접수: 2010년 1월 17일 1차심사: 1월 28일 게재승인일: 2월 5일

연구자 소개: 정현태

- ① 전공: 철학, 신학, 사회복지학 / 소속: 한국국제대학교
- ② 관심영역: 영성과 사회복지, 사회복지와 윤리.
- ③ 주요논저: 「한국의 사회복지현실과 한국인의 복지의식(물즈의 정의론관점)」
- ④ E-mail: jdd8502@hanmail.net

연구자 소개: 오윤수

- ① 전공: 사회복지학 / 소속: 대구가톨릭대학교 등 외래교수
 - ② 관심영역: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 ③ 주요논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등
 - ④ E-mail: ohysou@hanmail.net
-

Abstract

An Exploratory Thought on the Spirituality in the Social Welfare

Jung, Hyuntae

Part time professor of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Oh, Yunsou

Part time Professor of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study has a meaning in that it has tried to apply the spirituality to the social welfare in Korea. For this study, we defined the general meaning of spirituality and suggest the necessity of spirituality to the social welfare. In addition, we explained the principle of spirituality in the social welfare activities in Christianity and suggest the role of spirituality. As the method of this study, we mainly studied the previous publications and documents related to the study of spirituality. First of all, we studi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spirituality and then put an emphasis on the connectivity between social welfare and spirituality. In addition, we studied the principle of spirituality of social welfare in Christianity (Catholicism) by dividing it into the spiritual principle and practical principle. The social welfare in Christianity is different from typical social welfare in that it has the meaning of spirituality. To reflect the Catholic spirituality on the social welfare,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welfare through the spirituality is required. Accordingly, as the practical princip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welfare, we suggested the implementation of love, the implementation of duties for community, diversity and flexibility, and acquisition of professionalism. Therefore, the realization of social welfare through spirituality is for us to live in the community as a small person. The social welfare in Christianity is the welfare based on the spirituality.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spirituality is a definitely necessary concept for the whole-person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Second, should spirituality assume the nature of the might that can enable a human being to endlessly go toward the completion of life going beyond adversity, spirituality could be a substantially useful element in implementing a social welfare facility.

Third, considering through the practicing principle of church-initiated social welfare service, the value pursued by Christianity social welfare has a lot in common with the value pursued by the general social welfare. However, there exists a difference in a spiritual principle between the social welfare led by the general social welfare and the one by Christianity, and there is also a complementary aspect in a practicing principle between these two forms of social welfare.

Key words: spirituality, social welfare, spirituality in Christianity, implementation of social welfare